

#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에 對한 文獻的 考察 (少陽傷風證 結胸 亡陰病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朴 性 植 · 宋 一 炳

## I. 緒 論

東武 李濟馬 先生은 “人稟臟理에 有四不同 하나 肺大而肝小者를 名曰太陽人이오 肝大而肺小者를 名曰太陰人이오 脾大而腎小者를 名曰少陽人이오 腎大而脾小者를 名曰少陰人이라 하여 人體는 先天的으로 臟腑의 偏在를 지니고 있으며 臟腑의 大小로 因해서 큰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보았으며<sup>7,8)</sup> 各 體質마다 表病證과 裏病證으로 區分하는데 少陽人은 少陽人의 體質의 素人 때문에 疾病에 罹患되는 것으로 表病은 脾受寒表寒病 裏病은 胃受熱裡熱病으로 要約되며 少陽人의 外感病 進行過程에서 體質의 特性이 있으니 少陽人의 太陽病은 發熱惡寒에 脈浮緊하고 身痛 不汗出 煩燥하며 口苦 咽乾 目眩의 例證과 結胸 亡陰의 三證으로 區別하였다<sup>9)</sup>.

즉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體質의 特殊性 때문에 表陰(脾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背脊之間에 鬱滯된 것을 少陽傷風證이라 하고 病이 甚하여 脾陰이 大腸으로 內遁하면 亡陰證이 된다고 보았다<sup>7,8)</sup>.

이에 著者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을 少陽傷風證 結胸 亡陰의 三證으로 區別하고 各各 그 症狀을 中心으로 傷寒論 및 그에 關係된 文獻을 通하여 少陽人 表病證에 對한 證治醫學의 概念을 比較 考察하고자 한다.

## II. 資料 및 方法

### 1. 資 料

東醫壽世保元에 收錄되어 있는 張仲景의 傷寒論 및 그에 關係된 醫書들에서 補充資料를 取하였다.

### 2. 方 法

東醫壽世保元의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을 少陽傷風證, 結胸病, 亡陰病으로 分類하고 傷寒論 및 歷代醫書들에서 各 病症을 調査하여 比較함으로써 少陽人 表病證의 特徵을 把握한다.

## III. 本 論

### 1. 少陽傷風證

<文獻摘錄><sup>11)</sup>

①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 惡寒 身痛 不汗出而煩燥者 大青龍湯主之 論曰 發熱 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煩燥者 卽少陽人 脾受寒表寒病也 此證 不當用 大青龍湯 當用 荊防敗毒散

② 張仲景曰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而口苦 舌乾者 屬少陽 口苦 耳聾 胸滿者 少陽傷風證也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往來寒熱而嘔 屬少陽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論曰 此證 不當用 小柴胡湯 當用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 1) 大青龍湯證

傷寒論에서 太陽病中 大青龍湯의 適用을朴<sup>6)</sup>은 傷寒이 不汗出하여 表邪가 不解하고 陽氣가 體內에서 鬱滯하여 內熱한데서 形成된 表寒裡熱證이라 하고, 張<sup>32)</sup>은 胃素蘊熱한데 外感風寒한 境遇라 하였으니, 太陽病의 麻黃湯이나 桔梗湯으로는 表寒과 內熱을 함께 治療할 수 없기에 外로는 風寒을 解表하는 麻黃과 內로는 煩熱을 淸解하기 위한 石膏를 配合한 大青龍湯을 應用하였다<sup>6)</sup> 하였다.

傷寒論에서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 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燥者 大青龍湯主之”라 表現하는데 太陽病中風<sup>註1)</sup>과 比較해 볼 때 脈浮緩이 脈浮緊으로 汗出이 不汗出로 變해 있으며, 또한 中風이 傷寒에 비해서는 表虛證인데 이것이 麻黃湯보다 더 實한 大青龍湯으로 變해 있다는데 問題點이 있다.

이를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論하면 大青龍湯證을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이라 하고 荊防敗毒散을 쓸 것이라 하였다. 宋<sup>7,8)</sup>은 少陽人이 脾大腎小한 體質의 特殊性 때문에 腎陰이 항상 不足하고 胃 大腸의 陽氣가 旺盛하게 되므로 脾陰(表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背脊之間에 올려 鬱滯되기 쉬워 이 때에 外寒이 觸感되면 脾受寒表寒病이 생긴다고 보았고, 尹<sup>9)</sup>은 少陽人은 陰虛하기 쉬운 體質이고 胃가 寒과 熱에 對한 反應이 銳敏한 體質이므로 胃가 寒을 받으면 胃寒을 일으키고 胃寒하면

주1 太陽病 發熱 汗出 惡風 脈緩者 名爲中風

胃脘의 量이 不舒하여 達表치 못하므로 外表가 虛弱하여 外感風寒에 罹患되면 胸中에 蓄熱을 일으키어 煩燥를 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傷寒論에서는 太陽病中 煩燥가 나타나는 것을 外感表病에 裡熱證이 兼해져 나타나는 症狀을 重視여겨 大青龍湯과 같은 過激한 峻劑를 使用하였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症狀이 나타나게되는 內的成因(少陰人體質의 脾大腎小한 特殊性)을 重視하여 胸中에 蓄積된 鬱熱을 풀어주는 荊防敗毒散을 使用하였다.

### 2) 小柴胡湯證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少陽病證을 少陽人病證이라 하였고<sup>註2)</sup> 傷寒論에서는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也”라 하여 少陽病提綱을 定하고 “少陽中風 兩耳所聞 目赤 胸中滿而煩者 不可吐下 吐下則悸而驚” “傷寒 脈弦細 頭痛 發熱者 屬少陽 少陽不可發汗 發汗則譫語”라 하여 汗吐下 三法을 禁하고 和解法과 그 治方으로 小柴胡湯을 提示하였다.

즉 少陽病은 邪熱이 半表半裡에 入하여 正邪分爭하는 結果로 나타나는 症狀을 少陽病의 基本形證(小柴胡湯證)<sup>註3)</sup>으로 삼고 和解法과 小柴胡湯을 使用한다.

이를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口苦 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의 證은 少陽人 腎局陰氣가 熱邪에 陷한바 되고 脾局陰氣가 熱邪에 壅한바 되므로 能히 下降하여 腎局에 連接하지 못하고 腎間에 凝聚하여 膠固囚滯한 病이라

註2 六條病證中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病證 卽少陽人病證也 太陽病證 陽明病證則少陽人太陰人 少陰人病證均有之 而少陰人病證居多也(醫源論)

註3 傷寒中風 五六日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硬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

하고 이 證에 嘔하는 것은 外寒包裡熱하여 挾疾上逆하는 것이고 口苦 咽乾 目眩 耳聾은 陰氣가 欲解未降하므로 다만 寒하고 無熱하므로 耳聾한 것이고 口苦 咽乾 目眩은 例證이며 耳聾은 重證이다. 胸脇滿은 結胸의 證이니 脇滿者는 輕證이고 胸滿者는 重證이라 하였다. 張仲景이 淸痰 燥痰 溫冷相雜한 小柴胡湯으로 和解하여 其病을 不轉케하여 自愈코자 하나 이는 後來의 荊防敗毒散만 같지 못하다 하고 少陽人 表寒病에는 淸裡熱而降表陰하여 痰飲이 自散하면 結胸證이 預防不成한다 하고 小柴胡湯 대신에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이 마땅하다 하였다.

따라서 小柴胡湯證은 少陽人의 外感 表病으로 邪가 半表半裡에 있어 和解시켜야 한다고 보기 보다는 少陽人에서 表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背脊之間에 鬱滯되어 생기는 病으로 보아 淸裡熱而 降表陰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즉 少陽人에서 小柴胡湯證은 荊防敗毒散과 石膏劑證이 混合된 狀態라 하겠다<sup>9)</sup>.

## 2. 結 胸

<文獻摘錄><sup>11)</sup>

① 張仲景曰 少陽證 濺濺汗出 心下痞硬滿引脇下痛 乾嘔 短氣 不惡寒 表解裡未和也 宜十棗湯 若合下不下 令人脹滿遍身浮腫

傷寒表未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手不可近 心下滿而硬痛 此爲結胸 宜大陷胸湯

渴欲飲水 水入卽吐 名曰水逆 五苓散主之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而 膈內拒痛 手不可近 燥渴 譫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飲水 水入卽吐 心下硬滿 乾嘔 短氣者 此證也

② 凡結胸者 皆藥湯入口輒還吐 惟甘遂末入口 口涎含下 因溫水嗽口而下 則藥不還吐

凡結胸無非險證 當先用甘遂 仍煎荊防導赤散壓之

乾嘔短氣而 藥不還吐者 不用甘遂 但用荊防導赤散加 茯苓 澤瀉 各一錢

燥渴 譫語者 尤極險證也 急用甘遂 仍煎地黃白虎湯

③ 少陰人 傷寒病 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 傷寒病 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 俱是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裡急亦秘澁不和而 變生此證也

### 1) 證治醫學에서의 結胸

結胸이란 熱毒이 心胸에 結聚한 것<sup>19)</sup>으로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처음 言及된 以後 諸家들에 의해 舉論되어 왔다. 이에 傷寒論 및 歷代醫書들에 나타난 結胸의 原因 症狀 病變의 部位를 中心으로 文獻考察을 하였다.

#### (1) 結胸의 原因

張<sup>30)</sup>은 “病發於陽而 反下之 熱入因作 結胸 所以成結胸者 以下之太早故也”라 하여, 傷寒病에서 陽證인데도 불구하고 誤診 등으로 功下하여 發病되는 것으로 下劑를 너무 일찍 사용하는 것에 原因이 있다고 하였으며, 諸家<sup>6,14,19,20,23,28)</sup>들도 이를 引用하고 있다. 또한 張<sup>29)</sup>은 誤下로 因하여 結胸이 形成되는 것以外에, 傷寒論 中 “傷寒六七日 結胸熱實 脉沈緊 心下痛 按之石硬者 大陷胸湯主之”를 引用하고 傷寒表之實邪가 漸深하여 結聚於胸하므로 結胸이 되는 것을 不因下而由於本病者라 하여 다른 醫家들이 未經下者 非結胸也라는 說을 잘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結胸의 原因은 太陽病 表未解한 狀態에서 下부시키거나 誤下함으로서 形成되는 境遇와, 病의 자연 경과 과정에서 太陽病이 不愈하여 熱邪가 體裡로 侵入하는 過程에서 水飲과 結合해서 形成되는 境遇도 있다<sup>6)</sup>.

## (2) 結胸의 分類

傷寒論에서는 “按之痛 寸脉浮 關脉沈 名曰結胸”이라 하였고, 病變範圍의 大小 症狀의 輕重 및 寒熱의 相異에 따라 大結胸<sup>註4)</sup> 小結胸<sup>註5)</sup> 寒實結胸<sup>註6)</sup> 등 症候로 分類할 수 있고,<sup>6)</sup> 以後로 漸次 細分化되어 許等<sup>2,12,14,28)</sup>은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 熱實結胸, 水結胸, 血結胸, 陰陽毒結胸, 支結 등으로 分類하였다.

### A. 大結胸

#### a) 病變의 部位

- ① 從心下至少腹<sup>20,21,23,25,30)</sup>
- ② 連臍腹<sup>1,15)</sup>
- ③ 胸中<sup>24)</sup>
- ④ 胸連臍腹<sup>2,12,14,28)</sup>

#### b) 痛症의 樣相

- ① 硬滿而痛 不可近<sup>20,21,30)</sup>
- ② 硬滿而痛 手不可近<sup>15)</sup>
- ③ 胸中大痛 高起<sup>21)</sup>
- ④ 不安而痛 手不可近<sup>1,2,12,14,27,28)</sup>

註4 結胸者 項亦強如柔瘰狀 下之則和 宜大陷胸丸 傷寒六七日 結胸熱實 脈沈而緊 心下痛 按之石硬者 大陷胸湯主之

太陽病 重發汗而復下之 不大便五六日 舌上燥而渴 日晡所有潮熱 從心下至少腹硬滿而痛 不可近者 大陷胸湯主之

註5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脉浮滑者 小陷胸湯主之

註6 寒實結胸無熱證者 與三物小陷胸湯白散亦可服

### B. 小結胸

#### a) 病變의 部位

- ① 心下<sup>2,12,14,20,21,23,25,28)</sup>
- ② 胸中<sup>21)</sup>

#### b) 痛症의 樣相

按之則痛<sup>1,2,12,14,20,21,23,25,27,28)</sup>

### C. 寒實結胸

症狀① 結胸無熱證<sup>20,23,30)</sup>

- ② 身不熱口不渴但心中脹硬而痛<sup>2,12,14,21,24,28)</sup>

### D. 熱實結胸

症狀① 心下痛 按之石硬<sup>20,23,30)</sup>

- ② 心下滿硬 懊農 煩燥而渴<sup>2,12,14,28)</sup>
- ③ 懊農煩渴<sup>27)</sup>

### E. 水結胸

症狀① 但結胸無大熱 但頭微汗出<sup>15,16,20,21,23,30)</sup>

- ② 頭汗身無大熱心下滿按之汨汨有聲<sup>1,2,12,14)</sup>

### F. 血結胸

症狀① 婦人傷寒 血結胸膈 按之痛 不可撫近<sup>16)</sup>

- ② 譫語 狂言 小腹滿 漱水不欲飲<sup>21)</sup>
- ③ 婦人傷寒 血結胸痛 不可忍<sup>2,12,14,28)</sup>
- ④ 胸脇腹皆痛 譫語 昏愧<sup>15)</sup>
- ⑤ 婦人瘀血入 心脾痛<sup>1)</sup>

### G. 陰陽毒結胸

傷寒陰陽二毒 伏逆變爲結胸 有自利者 有不

得利者 依結胸灸臍法以利之 陽毒內服 活龍散  
陰毒內服 破結丹<sup>2,12,14)</sup>

#### H. 支 結

傷寒心下妨悶 不滿不硬<sup>2,12,14)</sup>

#### (3) 傷寒結胸과 傷寒藏結

張<sup>30)</sup>은 傷寒論에서 病에 結胸과 藏結이 있는데 結胸은 心下部를 按하면 아프고 寸口脉은 浮하며 關脉이 沈한 것을 말하며, 藏結은 結胸의 症狀과 같으나 飲食은 如故하고 때때로 下痢하며 寸口脉은 浮하고 關脉은 小細沈緊한 것을 말하고 舌上白苔가 滑한 者는 難治라하였는데 吳는 結胸은 實熱에 屬하는 故로 不大便而 脉沈石하고 藏結은 虛寒에 屬하는 故로 硬痛下痢而 脈細緊이라 했다. 또 張<sup>30)</sup>은 “病脇下素有痞 連在臍旁 痛引少腹 入陰筋者 此名藏結死” “藏結 無陽證 不往來寒熱 其人反靜 舌上 苔滑者 不可攻也”라 하고 李等<sup>14,28)</sup>은 下後에 邪氣入裡한데 陽과 더불어 相結하여 結在胸者는 結胸이 되고 陰과 더불어 相結하여 結在臍者는 藏結이 된다고 하고, 程<sup>34)</sup>은 病人이 平素 宿積이 있어 連於臍旁한데 다시 新邪가 加해져 痛引陰筋한 것은 邪氣 結實之候이니 難治라 하였다. 蔡<sup>13)</sup>는 藏結이 臍氣의 結塞不通이라 어떠한 病人지 明確하지 아니하며 지금의 癌病의 一種이라 보았다.

#### (4) 小 結

以上에서 傷寒論 以後 歷代 醫家들에 依해 言及된 結胸을 總括하면 結胸은 表邪가 內陷하는 過程에서 熱邪가 痰水와 結合해서 胸廓部에 結聚된 病變으로 그 病變部는 胸部에서 부터 境遇에 따라 下腹部까지 波及되며 一般的인 것은 熱實結胸에 屬하나 以外에도 寒實

結胸證을 形成하는 境遇도 있으며, 病因이나 症狀에 따라 水結胸, 血結胸, 陰陽毒結胸, 支結等으로 細分하기도 하며 藏結은 結胸과 같이 下後에 邪氣入裡한 病으로 結胸이 陽證實熱에 屬하는데 反해 藏結은 陰證虛寒에 屬한다.

#### 2) 東醫壽世保元에서의 結胸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傷寒論의 結胸證 以外에 十棗湯證<sup>註7)</sup>과 五苓散證<sup>註8)</sup>을 包含하여 結胸病으로 論하고 있는데 張<sup>32)</sup>은 十棗湯은 水飲이 胸脇에 停聚하여 氣機升降이 阻礙되어 나타나는 懸飲에 五苓散은 太陽病에 熱이 水와 結하여 膀胱의 氣化作用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太陽蓄水證에 使用한다고 하였다.

東武<sup>11)</sup>는 張仲景의 大陷胸湯 十棗湯 五苓散의 三證을 모두 少陽人 結胸病이라 하고 膈內가 通하여 손을 接近치 못하게 하고 燥渴 譫語하는 것은 結胸의 가장 尤甚한 證이며 水를 마시고저하나 水가 入하면 곧 吐하고 心下가 痞硬滿하고 乾嘔하고 短氣하는 것은 此證이라하여 輕重을 區別하였다 무릇 結胸은 險證아닌 것이 없는데 먼저 甘遂末을 써서 藥不還吐하게 嘔逆을 눌러 놓고서 荊防導赤散을 쓰라고 하였고 燥渴 譫語하는 것은 尤極한 險證이니 地黃白虎湯을 使用하라 했다.

少陰人 傷寒病에 小腹硬滿之證과 少陽人 傷寒病의 心下結胸之證은 모두 表氣의 陰陽이 虛弱하여 正邪가 相爭함이 累日이 되어도 決치 못하고 中氣가 秘澁하여 不和하므로 變生한 것이라 하고, 少陽人病의 心下結硬은

註7 太陽中風 下痢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澀澀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 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 解裡未和也 十棗湯主之

註8 中風發熱 六七日 不解而煩 有表裡證 渴欲飲水 水入即吐者 名曰 水逆 五苓散主之

結胸病이라하여 其病可治이나 少陰人病의 心下結硬은 藏結病이라하여 其病不治라하였다.

또한 結胸中 水結胸과 寒實結胸證은 少陰人 太陰病으로 張仲景의 茵蘆蒿湯證과 相類라하고 이 病은 반드시 眞結於心下한 것이 아니고 痞滿於心下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고 마땅이 桂枝半夏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巴豆丹을 쓸 것이라 했다.

### 3. 亡 陰

<文獻摘錄><sup>11)</sup>

① 論曰 少陽人 身熱 頭痛 泄瀉 當用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 腹痛 泄瀉 當用 滑石苦蔘湯 荊防地黃湯 此病名爲之亡陰病

② 凡少陽人 有身熱頭痛則 已非輕證而兼有泄瀉則危險證也 必用荊防瀉白散

③ 少陽人 身寒 腹痛 泄瀉 一晝夜間 三四五次者 當用 滑石苦蔘湯 身寒 腹痛 二三晝夜間 無泄瀉 或難辛一次泄瀉者 當用 滑石苦蔘湯 或用熟地黃苦蔘湯

④ 古醫又言 汗多亡陽 汗多亡陰 此言是也 何謂然耶 少陰人 雖則冷勝 然陰成格陽 敗陽外遁則 煩熱而汗多也 此之謂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陽盛格陰 敗陰內遁則 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必死也 不急治必死也

⑤ 亡陽者 陽不上升而反爲下降則 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而反爲上升則 亡陰也

⑥ 陰盛格陽於上則 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而外遁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 內氷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則 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膈而內遁膈裡故 腸胃畏寒而

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 內炭外氷 陰將亡之兆也

⑦ 少陰人 平居裡煩汗多者 病得則必成亡陽也 少陽人 平居表寒汗多者 病得則必成亡陰也 亡陽亡陰人 平居預治 補陰補陽可也 不可至於亡陽亡陰 得病臨危然後 救病也

⑧ 少陰人 亡陽病 少陽人 亡陰病 正邪陰陽不敵而相格故 初證已爲險證 繼而因爲危證矣

⑨ 亡陰之泄 手足掌心 不汗 屢次泄利 表氣朔寒而 精神鬱冒

#### 1) 證治醫學에서의 亡陰

金 等<sup>3,5,17)</sup>은 亡陰, 亡陽은 疾病過程 中の 重大한 症狀이며 대개는 高熱 蒸暑 發汗過多 失血過多 等에 依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張<sup>30)</sup>의 傷寒論에서는 “凡病 若發汗 若吐 若下 若亡血 亡津液 陰陽自和者 必自愈” “大下之後 復發汗 小便不利者 亡津液故也 勿治之 得小便利 必自愈”라 하여 亡津液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으나 亡陰이란 用語는 찾아볼 수 없었고 蔡<sup>13)</sup>는 少陰病에서 心中이 煩하여 不得한 證<sup>註9)</sup>과 咽痛證<sup>註10)</sup>을 邪熱로 津液이 枯乾한 亡陰과 下利亡陰하여 孤陽이 上燔한 證으로 보았으며, 尹<sup>9)</sup>은 이를 少陽人病이라 하였다.

徐<sup>18)</sup>는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血屬陰 是汗多乃亡陰也:라 하여 汗出過多가

亡陰이 된다고 하여 亡陰 亡陽의 辨法으로서 亡陰之汗은 身畏熱 手足溫 肌熱 汗亦熱而味鹹 口渴喜冷飲 氣粗 脉洪實 此其驗也라하고, 亡陽之汗은 身反惡寒 手足冷 肌涼 寒冷而味

註9 少陰病得之 二三日 以上 心中煩 不得臥者 黃連阿膠湯主之

註10 少陰病 下利 咽痛 胸滿 心煩者 豬膚湯主之

淡微粘 口不渴而喜熱飲 氣微 脈浮數而空 此其驗也라 하여 亡陰 亡陽을 辨別하였고, 文等<sup>45,17,33)</sup>은 八綱辨證 가운데 陰陽辨證에서 亡陰 亡陽을 表1과 같이 分別하였다. 이 때의 亡陰은 人體津液이 極度로 喪失되었을 때 나타나는 病變으로 大失血이나 嘔吐 腹瀉 등으로 脫水 狀態를 말한다<sup>33)</sup>고하며, 文<sup>5)</sup>은 亡陰 亡陽의 治法으로 扶正固脫을 提示하고 亡陰은 益氣斂陽 大補元氣로 陰液을 生하는 生脉散을 用하고, 亡陽은 回陽益氣固脫法으로 人蔘 附子를 用하라 하였다.

또한 衛氣營血辨證面에서 程<sup>35)</sup>은 溫熱病을 對象으로 衛氣營血의 4段階로 辨證施治하면서 熱入血分하여 血熱이 陰液을 消耗시키는 血熱傷陰의 狀態<sup>註11)</sup> 血熱이 久留不去하여 津液虧竭의 亡陰失水の 狀態<sup>註12)</sup>가 血分證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陸<sup>26)</sup>은 溫疫病에 邪未盡하여 數下한 後 兩目如澁 舌乾燥 脣口燥裂의 辨證이 나타나는 것을 數下亡陰證이라 하고 清燥營養湯이나 承氣營養湯을 用하라 했다.

표 1 陰陽辨證 中 亡陰 亡陽<sup>45,17,33)</sup>

	症 狀	舌象	脈象
亡陰	汗熱而粘 呼吸短促 身畏熱 手足溫 躁妄不安 渴喜冷飲 面色潮紅	舌紅而乾	脈數無力
亡陽	汗冷如珠 呼吸氣微 身畏寒 四肢厥冷 精神爲頓 喜熱飲 面色蒼白	舌淡而潤	脈微欲絕

註11 血熱傷陰 ; 身熱面赤 口舌乾燥 耳鳴 耳聾 五心煩熱 脉虛數

註12 亡陰失水 ; 肢體瘦弱又乾枯 脣萎 舌縮 齒積垢 目陷睛迷 昏沈睡 肢端厥冷 拘急抽 脉微欲絕 指蠕動

## 2) 東醫壽世保元에서의 亡陰

李<sup>11)</sup>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自身을 盤龍山老人이라 稱하면서 亡陰 亡陽에 對한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李<sup>11)</sup>는 少陽人에 있어 身熱 頭痛 泄瀉에는 마땅이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用하고 身寒 腹痛 泄瀉에는 滑石苦蓼湯 荊防地黃湯을 用할 것이니 이 病名을 亡陰病이라 하고 古醫가 말한 頭無冷痛 腹無熱痛은 認定하지 않고 “汗多亡陽 下多亡陰”은 옳다 하면서 少陽人은 비록 熱이 勝하나 陽盛格陰하여 敗陰이 內遁한 즉 畏寒하고 泄下하니 이를 亡陰病이라 한다 하고 정의하였다.

亡陰의 病理機轉으로는 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반대로 上升하게 되면 亡陰이라고하고, 또 下에서 陽盛하여 格陰한 즉 陰이 陽에 壅塞되어 膀胱으로 下降할 수 없어 背脊로 上逆하고 膈裡로 內遁하는 故로 腸胃가 畏寒하여 泄下하는 것이니 畏寒하고 泄下하는 것은 陰盛이 아니다. 이것은 所謂 內炭外氷으로 陰이 將次 亡할 徵兆다 라고 하였는데 尹<sup>9)</sup>은 이를 眞熱假寒證이라 했다.

亡陰病의 經過過程으로는 少陽人에 身熱하고 頭痛이 있는 즉 이미 輕證이 아니요 兼하여 泄瀉가 있으면 危險한 證이며, 亡陰 亡陽은 用藥하지 않으면 必死하고 急治하지 않아도 必死한다 하였으며, 少陽人의 病愈之泄은 手足掌心に 먼저 汗하고 一次의 滑利로 表氣가 淸寧하고 精神이 爽明하나 亡陰之泄은 手足掌心に 不汗하고 累次泄利해도 表氣가 朔寒하고 精神이 鬱冒하다고 하여 少陽人 泄瀉에 手足掌心이 汗出狀態로서 豫候를 判斷하고 있다<sup>11)</sup>.

亡陰病의 治療는 身熱 頭痛 泄瀉에는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에는 滑石苦蓼湯 荊防地黃湯 或熟地黃苦蓼湯을 使用하고, 또 少陽人 恒有腹痛에 六味地黃湯 滑石苦蓼湯을 쓰고 不痛時에는 平心靜慮하며 衰

心怒心を 恒戒하여야 愈한다<sup>11)</sup>하였는데 이는 亡陰病에 藥物治療 以外에 精神的 安靜 狀態가 重要함을 말하고 있다.

少陽人 亡陰病과 함께 少陰人 亡陽病을 함께 危險한 病으로 取扱하여 少陰人이 平居에 裡煩하고 汗多한 者가 得病하면 반드시 亡陽病을 成하고 少陽人이 平居에 表寒하고 下多한 者가 得病하면 반드시 亡陰病을 成하니 亡陰 亡陽은 平居에 補陰補陽하여 豫治하는 것이 可하고 得病하여 危機에 臨한 後에 救하는 것은 不可하다고<sup>11)</sup>하여 豫防을 重視했다.

少陰人 亡陽病과 少陰人 亡陰病을 比較하면 表2와 같다.

表2 少陰人 亡陽病과 少陰人 亡陰病

	少陰人 亡陽	少陽人 亡陽
病 理 機 轉	少陰人 雖則冷勝 然陰成格陽 敗陽外 遁則煩熱而汗多也 陽不上升而反爲下 降則 亡陽也 陰盛格陽於上則 陽爲陰 不能上升於胸 膈 下陷大腸而 外 遁膀胱故 背表煩熱 而汗出也 煩熱而汗 多者 非陽盛也 此所 謂 內水外炭 陽將 亡之兆也	少陽人雖則熱勝 然 陽盛格陰敗陰內遁則 畏寒而泄下也 陰不下降而反爲上升 則 亡陰也 陽盛格陰於下則陰爲 陽壅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膻而內遁膈裡 故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非陰盛 也 此所謂內炭外水 陰將亡之兆也
病 證 分 類	少陽初證 太陽病 發熱 惡寒而汗 自出者 亡陽中證 陽明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末證 陽明病 發熱 汗多者	身熱 頭痛 泄瀉 身寒 腹痛 泄瀉

	亡陽證 都是 身熱自汗出也	
汗 出 狀 態	少陰人病愈之汗 人中先汗而一次發汗 壯快而活潑 亡陽之汗 人中或汗或不汗 累次發汗 胸膈煩悶而下陷也	少陽人病愈之泄手足 掌心先汗而一次滑泄 表氣清寧而精神爽明 亡陰之泄 手足掌心 不汗 累次泄利 表氣 朔汗而精神鬱冒
平 居 狀	少陰人 平居而煩 汗多者 得病則必成 亡陽也	少陽人 平居表寒下多 者得病則必成亡陰也
治 方	黃芪桂枝湯 } 亡陽 補中益氣湯 } 初證 升陽益氣湯 } 黃芪桂枝附子湯 } 人蔘桂枝附子湯 } 升陽益氣附子湯 } 亡陽末證	豬苓車前子湯 } 身熱 荊防瀉白散 } 頭痛 泄瀉 滑石苦蓼湯 } 身寒 荊防地黃湯 } 腹痛 熟地黃苦蓼湯 } 泄瀉
豫 防	亡陽 亡陰人 平居 豫治 補陰 補陽可也 不可治於 亡陽亡陰 得病臨爲然後救病也	

#### IV. 總括 및 考察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體質의 特殊性 때문 에 腎陰이 恒常 不足하고 胃 大腸의 陽氣가 旺盛하게 된다 따라서 脾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背膻之間에 攢聚 鬱滯하기 쉬워 이 때에 外寒이 觸感되면 脾受寒表寒病이 생긴다고<sup>7,8)</sup> 보았는데 이 脾受寒表寒病을 少陽傷風證 結 胸亡陰으로 分類하고 그 各各을 證治醫學의 概念과 比較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 1. 少陽傷風證

이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少陽傷風



證은 仲景 傷寒論의 少陽病 즉 口苦 咽乾 目眩耳聾 往來寒熱 胸脇苦滿 等の 小柴胡湯證과 大靑龍湯證을 包含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太陽病의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한 表證에 煩燥症狀이 兼해져 나타나는 表寒과 內熱을 함께 治療하기 위해 麻黃과 石膏가 配合된 大靑龍湯을 使用하는데<sup>6)</sup> 이 때의 煩燥證은 胸中實熱로 煩燥하는 少陽人病이며 風寒邪의 表病이 體質에 따라 體系가 달라지며 內的 成因이 重要하다<sup>9)</sup> 하였다.

傷寒論에서 少陽病은 邪가 半表半裡에 있어 正邪分爭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汗吐下 三法이 不可하고 和解法으로 治하라<sup>6)</sup> 했으나, 李<sup>11)</sup>는 “少陽人 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凝聚背脊間 膠固囚滯之病也”라 하고 단지 小柴胡湯으로 病의 轉變을 막아 治療하기 보다는 少陽人의 脾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背脊之間에 鬱滯하에 생기는 病이니 荊防敗毒散 等으로 清裡熱而降表陰이라고 했다.

少陽傷風證은 少陽人 外感表實證이니 大靑龍湯이나 小柴胡湯 보다는 清裡熱하고 降表陰하는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을 使用할 것이며, 이를 綜合하면 표3과 같다.

## 2. 結 胸

張<sup>30)</sup>이 “病發於陽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이라 하여 結胸을 처음 言及한 以後 巢<sup>19)</sup>는 熱毒이 心胸에 結聚된 것으로 보았고, 結胸의 原因으로 張<sup>29)</sup>은 “有因誤下而成者”와 “有不因下而由於本病者”의 두가지 境遇를 들고 있으며, 張 等<sup>30)20)23)</sup>은 結胸을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 熱實結胸 等으로 區分하였고 疔疔許 等<sup>14)28)</sup>은 大,小, 寒實, 熱實結胸 以外에 水結胸, 血結胸, 陰陽毒結胸, 支結 等으로 病變의 部位 寒熱의 相異 等에 따라 區分하였다.

傷寒論에서 太陽病 表未解한데 醫反下之하

여 變證이 發하는데 다 같지 않은것<sup>13)</sup>을 尹<sup>9)</sup>은 臟氣가 不一한 까닭이니 여기서 病證과 先天的體質의 關係를 뚜렷이 알 수 있으며 誤下에 있어 太陰人은 偶中하여 汗解하는 수가 있고 少陽人은 結胸이되고 少陰人은 咽痛을 發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sup>17)</sup>에서는 少陽傷風證이 惡化되거나 傷寒表未解에 醫反下之하면 結胸이되는데 張仲景의 大陷胸湯 十棗湯 五苓散의 三證을 모두 少陽人 結胸病이라 하고 甘遂末을 써서 藥不還吐하여 嘔逆을 눌러 놓고서 荊防導赤散을 쓰라 하였고, 寒實結胸과 水結胸은 少陰人 太陰病으로 桂枝 半夏 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을 쓰라 하고 하였다. 또 少陰人 傷寒病 小腹硬滿之證과 少陽人 傷寒病의 心下結胸之證은 모두 表氣陰陽이 虛弱하여 正邪가 相爭함이 累日이 되어도 決치 못하고 裡氣가 秘澁하여 不和므로 變生한 것이라 하고 少陽人病의 心下結硬은 結胸病이라고 하며 其病可治이나 少陰人病의 心下結硬은 藏結病이라하여 其病不治라 하였다.

證治醫學에서의 結胸과 四象醫學에서의 結胸을 綜合하면 표4와 같고, 少陽人 結胸病은 張仲景의 大,小結胸, 懸飲(十棗湯證), 太陽蓄水證(五苓散證)을 包含하고 있으며, 證治醫學의 寒實結胸과 水結胸은 少陰人 太陰病이며, 表未解한데 醫反下之하여 變證이 發生하는데 少陽人은 結胸病 少陰人은 咽喉病 太陰人은 或解하거나 頷結咳 等으로 나타날수 있다고 思料된다.

## 3. 亡 陰

張<sup>30)</sup>은 傷寒論에서 若發汗 若吐 若下 若亡血 및 大下之後復發汗하여 亡津液의 狀態가

註13) 太陽病下之 其脈促 不結胸者 此爲欲解也 脈浮者 必結胸也 脈繁者 必咽痛 脈弦者 必兩脇拘急 脈細數者 頭痛未止 脈沈緊者 必欲嘔 脈沈滑者 協熱利 脈浮滑者 必下血.

되나 陰陽自和者 必自愈라 하여 特別한 治法을 提示하지 못하고 陰陽自和할 수 있는 能力有無에 따라 愈하고 不愈할 수 있음을 말했으나 各 體質의 特性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으며, 許<sup>14)</sup>는 “汗多亡陽 下多亡陰”이라 하였고 文等<sup>3)5)17)33)</sup>은 高熱蒸暑 大失血 嘔吐泄瀉 등으로 因한 脫水 狀態로 亡陰을 보고 있으며, 程<sup>35)</sup>은 溫熱病에서 血熱傷陰하여 亡陰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少陽人이 비록 熱勝하나 陽盛格陰하여 敗陰이 內遁한 즉 畏寒하고 泄下하니 이를 亡陰病이라하고, 少陽傷風證 治療의 不全으로 熱이 肌肉間에 남아 있거나 平素에 精神의 不安要因(哀心, 怒心)과 攝生의 不注意에서 오는 陰虛火動으로 말미암아 敗陰이 內遁한 境遇의 身熱頭痛 亡陰과 身寒 腹痛 亡陰으로 區別하였고 身熱 頭痛泄瀉는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에 石膏를 加하여 쓰고 身寒 腹痛 泄瀉에는 滑石苦蔘湯 荊防地黃湯 熟地黃苦蔘湯에 黃連 苦蔘을 加해서 쓰라고 했다<sup>78)</sup>. 또한 少陰人에서 陽不上升而反爲下降則 亡陽이 되는 것이고 少陽人에서 陰不下降而 反爲上升則 亡陰이 되는 것으로 亡陰亡陽의 病理를 說明하고 亡陽 亡陰人은 平居에 豫治 補陰補陽이 可也라 하여 豫防을 重視 하였다.

證治醫學의 亡陰과 四象醫學에서의 亡陰을 綜合하면 표5와 같으며 이제까지 亡陰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것을 東醫壽世保元에서 明確히 밝혀 놓았다 하겠다.

## V. 結 論

東醫壽世保元의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에 나타난 少陽傷風證 結胸 亡陰病을 中心으로 傷寒論 및 歷代醫書들을 通해 比較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少陽傷風證은 少陽人 外感表病으로 張仲景의 大青龍湯證과 小柴胡湯證을 包含한다.
2. 證治醫學에서의 結胸은 病變의 部位나 症狀의 寒熱相異를 重視하고 四象醫學에서는 內的成因 즉 體質의 特性을 重視하고 있으며, 少陽人 結胸病은 張仲景의 大,小結胸 및 懸飲證 太陽蓄水證을 包含하며 張仲景의 寒實結胸과 水結胸은 少陰人 太陰病에 屬한다.
3. 亡陰病은 少陽人의 脾大腎小한 體質의 特性으로 因한 病이며 恒悸哀心怒心하고 平素 補陰하여 體質의 缺點을 補完하는 豫防法을 重視했다.
4. 少陽傷風證 結胸 亡陰病은 各其 別個의 症狀가 아닌 少陽人에서 脾陰이 下降하지 못하고 背臂之間에 몰려 鬱滯하기 쉬운 까닭에 나타나는 一連의 症狀이다

## 參 考 文 獻

1. 康明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 19, 139, 140, 1971.
2. 具本泓外;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pp. 60-62, 1989.
3. 金完熙外;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pp. 333-335. 1982.
4. 金定濟外; 東醫臨床要覽, 서울, 書苑堂, pp. 48-49, 1977.
5. 文潛典外; 東醫病理學, 서울,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卷 pp. 273-274, 1986.
6. 朴憲在; 傷寒論概論, 서울, 藥業新聞社出版局, pp. 46-47, 61-62, 69-78, 156-168, 1985.
7.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의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pp. 26-30, p. 49, 1967.
8. 宋一炳; 四象原論,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pp. 21-25, p. 34, 1979.

丑3 少陽傷風證

	傷 寒 論		東 醫 壽 世 保 元
	大 青 龍 湯 證	少 陽 病 小 柴 胡 湯 證	
病 機	不汗出하여 表邪가 不解하고 陽氣가 體內에서 鬱滯하여 內熱한 故로	邪熱入于 半表半裡 正邪分爭	少陽人 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凝聚臂間膠固囚滯之病
症 狀	發熱 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燥	口苦咽乾 目眩咽乾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大青龍湯證 小柴胡湯證
證 名	表寒裡熱證	半表半裡證	少陽人 少陽傷風證
治 法	散風寒兼清熱	和解	清裡熱而降表陰
治 方	大青龍湯	小柴胡湯	荊防敗毒散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丑4 結 胸

	證 治 醫 學	四 象 醫 學
病 機	有因誤下而成者 有不因下而由於本病者	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裡氣亦秘澁不和而變生此證也
分 類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 熱實結胸 水結胸 血結胸 支結 陰陽毒結胸 病變의 部位나 症狀의 寒熱을 重視	大結胸 小結胸 熱實結胸 및 懸飲 十棗湯證 太陽蓄水證 五苓散證 一少陽人 結胸病 寒實結胸 水結胸 一少陰人 太陰病 내적성인 체질의 특성을 증시
治 方	大結胸-大陷胸湯(丸) 小結胸-小陷胸湯 熱實結胸-大陷胸湯 加味陷胸湯 柴陷湯 寒實結胸-三物白散 枳實理中丸 水結胸-赤茯苓湯 大陷胸湯 血結胸-海蛤散 玄胡索散 陰陽毒結胸 : 熱毒-活龍散 陰毒-破結丹 支結-桂枝人參湯(이상 東醫寶鑑)	少陽人 甘遂 先用甘遂 荊防導赤散 荊防導赤散加 茯苓 澤瀉 各1錢 地黃白虎湯 少陰人 桂枝半夏生薑湯 赤白何烏寬中湯 三物白散 或용 巴豆丹
藏 結 病 斗 鑑 別	如結胸狀 飲食如故 時時下利 寸脉浮 關脉細小沈緊 名曰結胸 病因 胸中素有痞 連在臍旁 引入小腹 入陰筋者 此名藏結死	少陰人病心下結硬者名曰藏結病 其病不治也 若少陰人病而心下右邊 結硬則不治 少陽人病 心下結硬者名曰結胸病其病可治也

丑5 亡 陰

	證 治 醫 學	四 象 醫 學
病 因 病 機	下多亡陰 數下亡陰 發熱過多 高熱蒸暑 發汗過多 失血過多(大失血) 嘔吐 腹瀉 血熱傷陰 亡陰失水	少陽人 雖則熱勝 然陽盛格陰 敗陰內遁則 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 陰不下降而反為上升則亡陰也 少陽人 平居表寒下多者 得病則必成亡陰也 少陽人은 多陽少陰 陰虛 陽盛으로 亡陰이 되기쉬운 素因的 體質이다.
症  狀	汗熱而粘 呼吸短促 身畏熱 手足溫 躁妄 不安 渴喜冷飲 面色潮紅 舌紅而乾 脈數 無力	內炭外水(陽盛格陰於下則陰為陽壅 不能下 降於膀胱 上逆膀胱而內遁膈裡 故腸胃 畏寒 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 炭外水 陰將亡之兆也 身熱 頭痛 泄瀉 身寒 腹痛 泄瀉 眞熱假寒
汗 出 狀 態	汗亦熱而味鹹 汗熱而粘	少陽人 病愈之泄 手足掌心 先汗而一次滑泄 表氣清寧而精神爽明 亡陰之泄 手足掌心 不汗 累次泄利 表氣朔寒而精神鬱冒
治 法 及 治 方	扶正固脫(大補元氣로 生陰脈) 生脉散	身熱 頭痛 泄瀉-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 腹痛 泄瀉-滑石苦蔘湯 荊防地黃湯 或 熟地黃苦蔘湯 平心靜慮 恒惺哀心怒心 亡陽亡陰人 平居預治 補陰補陽可也
豫 候	疾病過程 中的 重大한 症狀이며 陰陽相互 互根이므로 亡陰하게되면 陽氣가 附依할 곳이 없어 散越하게 되므로 亡陰은 迅速 하게 亡陽으로 轉化될 수 있다.	亡陰亡陽病 正邪陰陽 不敵而上格 故初證已 為險證 繼而因為危證矣 亡陽亡陰病 非用藥必死也 不急治必死也 蓋此病 從古以來 殺人孟浪甚速

9.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寶出版社, pp. 63-79, 151-159, 184-185, 207-208, 228-229, 264-265, 269-273, 285-286, 303-305, 328-329, 1986.
10.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p. 111, pp. 199-202, 247-269, 1985.
1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p. 27, pp. 49-50, 75-86, 1974.
12. 李珩九;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民瑞出版社, pp. 177-180, 1984.
1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pp. 43-44, p. 68, pp. 80-85, 103-141, 193-196, p. 213, 218, 1985.
1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 268-269, p. 356, 1983.
15. 羅天益; 衛生寶鑑, 서울, 金剛出版社, pp. 413-414, 1981.
16. 樓英;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四冊卷32 pp. 15-21, 1973.
17.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香港, 商務印書館, pp. 160-161, 1975.
18.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市, 五州出版社, pp. 69-70, 1978.
19. 邵元方; 諸病源候論, 台北, 集文書局, p. 83, 1976.
20. 孫思邈; 千金翼方, 台中, 自由出版社, pp. 102-103, 1951.
21.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上冊 pp. 33-53, 1982.
22. 王肯堂; 六科準繩, 台北, 新文豐出版社, 三冊 pp. 228-233, 1979.
23. 王燾; 外臺秘要, 台灣, 國立中國醫藥研究所, pp. 81-83, 1964.
24.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p. 118, pp. 127-128, 1973.
25. 劉完素;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p. 483, 1976.
26. 陸青節; 萬病醫藥顧問,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上冊 內科外感病 pp. 63-68, 1959
27. 李中梓; 醫宗必讀,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 174, 1977.
28.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卷III pp. 60-63, 195-196, 1982.
2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出版社, 上卷, pp. 158-160, 1988.
30. 張機; 仲景全書, 서울, 醫道韓國社, p. 106, 128, pp. 153-159, 175-183, 238-240, 252-255, 1975.
31. 張璐; 張氏醫通, 台北, 文光圖書公司, pp. 45-46, 1976.
32. 張世濟; 傷寒論 六經病證治扎要, 陝西省, 人民衛生出版社, pp. 29-30, 74-82, 89-91, 1983.
33. 長春中醫學院; 中醫診斷學, 吉林省, 人民衛生出版社, pp. 120-121, 1984.
34. 程國彭; 醫學心悟, 台北, 旋風出版社, pp. 115-117, 1970.
35. 程紹恩 王貴臣; 辨證證治心法, 香港, 宇宙出版社, pp. 107-125, 1986.